

AHP 방법론을 이용한 정보보호인력 정책 분석

전효정,

muroii@hanmail.net

김태성

kimts@cbucc.chungbuk.ac.kr

충북대학교 경영정보학과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충북대학교 학연산 공동기술연구원 902호

043-276-3343, 011-468-2379

키워드: 정보보호인력, AHP 방법론, 인력 정책

정보보호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 나아갈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보호시장의 낙관적인 성장 전망 뒤에는 세계시장과의 기술격차,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있다.

현재 국내 정보보호시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1998년부터 본격적인 기술개발을 시작하고,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하여, 기술개발 측면에 있어서는 정보보호기술의 확보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해외 정보보호 선진국에 비해서는 정부차원의 기술개발 투자액이 적고, 민간업체의 기술개발 여건도 여전히 열악하다.

또한, 정보보호인력 양성 측면에 있어서는 2000년부터 시행된 정보보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석·박사 인력 200여명을 양성하였으며(KISA, 2002), 2년제 대학 및 4년제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 포함해 모두 20여 개 이상의 정보보호학과가 신설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으나, 정작 필요한 시장수요에 적합한 인력 배출과는 아직까지도 연계되지 못하고 있어, 인력의 수급불일치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에서 살펴본 정보보호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련의 기술 및 인력 관련 정책의 방향이 각기 독자적으로 구현되기보다는 통합된 형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즉, 현재, 정보보호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정보보호인력의 수급 불일치 문제'를 인력의 양적인 부족의 관점이 아닌,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부족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보호산업이 기술기반산업임을 감안하여 정보보호인력의 양성을 정보보호기술별로 차별화된 전문성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AHP 방법론을 이용하여 연구의 모형을 설정하고, 이 모형을 AHP 방법론에 적용시켜 설문을 설계하였다. 이 후, 설문지를 배포하고 응답을 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의 데이터를 AHP 분석 툴인 Expert Choice 2000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그 결과를 해석하였다.

설문 결과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된 6부의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평가대안간 우선순위에서 정보보호 기반 기술이 1위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정보보호인력 양성 정책을 정보보호기술 개발 분야와 연계시켜 나아가간다면 시스템 네트워크 보호 기술과 응용 정보보호 기술보다는 정보보호 기반기술 분야의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2002년 8월 나온 정보통신부의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에 명시된 정보보호인력 양성 정책을 수정 및 보완함으로써 정보보호시장의 향후 인력정책의 방향을 제안하였다.